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3. 28.(목)

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

- 한덕수 총리 한국 희귀·난치성 질환 연합회 방문, 의사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한 연합회 소속 환우회원 의견 청취

□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(목)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·난치성 질환연합회*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.

* 대한파킨슨병협회,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, 결절성경희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

○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,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,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
□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,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.

○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‘지역완결형 의료체계’를 만들 계획으로, 현재 17개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.

□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·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“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”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

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립니다”고 밝혔습니다.

○ 또,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“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”고 말하며, “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”고 말했습니다.

□ 한 총리는 “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,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”며, “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.” 고 말했습니다.

○ 또한 “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증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”라고 밝히며 “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.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”고 당부했습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 성현국 (044-200-2293)
		담당자	사무관 김나진 (044-200-2294)